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프란도르戰後의展望

新政府承認時期는 日支基本條約調印時

記者團에게首相、對內外政策披瀝

▲支那事變處理의現段階

▲外交問題

▲內政問題

蘭印의現狀維持에 重大關心가짐은當然

太平洋協會서有田外相演說

地方民草에大御心

京都皇宮서地方事情御聽取

全國民의意思綜合 强力한新黨結成

聖戰貫徹議員聯盟政治體制整備策決定

各政黨政派內에 新黨準備委員會設置

陳公博氏 九大에서講演

今年度物動計畫案 七日閣議에附議

中華民國共和黨

技能者資格審査 等級證明書交付

伊의陸海空兵力 陸軍第一線部隊만九十萬

靑年團最初의 動員大會開催

滿洲國의 對外放送陣强化

全國社會課長會議

獨軍死者六十萬 佛軍當局觀測

米機加奈陀空輸

重慶의對米新借款 交涉不成功

諏訪新外事部長略歷

辭令

市況(三日)

체중에…
배속이늘거북하고 가슴이묵진해지는등의속병은 몸에비타민B가결핍되어 생기는병입니다

비타민B를보급식히자
우리들이 일상먹고잇는쌀밥은 우리들동양인의 영양원으로서는 그어상없는음식물인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것을 잘소화영양하식혀가지고 살과피로가게함에는 무엇보다도 매열취하고잇는쌀밥의분량에비례하여 비타민B複合體의보조를받지않으면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음식물에는 여귀중한영양소가약소하기때문입니다
즉그것의부족으로인하여 위장의활동력이둔해저서 소화불량 식욕부진등의만성적의위장증상을 일으키게되는것이오니 여것을근치식히시려면 모든언물중 제일많이비타민B複合體를 포함하고잇는「에비오스錠」만連用하여주시오면 둔해진위장에활동력을주는만큼 큰위장병이一掃됩니다

三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에粉末도 있읍니다
全道有名藥房에있읍니다

馬越藥學博士創製
橋谷農學博士監製
エビス・アサヒ・サッポロ・ユニオン 麥酒醸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에비오스錠
FB-K-128

闇取引綜合道場 "고무"

어듬속에서 굴르는대로 價格은昂騰

고무신篇

生活線裏兩面 —六—

일할수잇는靑少年을 産業戰士로總動員

"일하지안는사람은먹지말라"

國家는勞働力獲得 銃後靑年再敎育

一石二鳥의效果期待

林社會課長談

"夫婦團欒의"저녁散步"

幽明相隔될줄이야?

意外! 滿員電車에男便빼앗긴靑孀의哀訴

一朝瓦解된生活設計

遺族三名어쩌사나?

슬픈事情을西大門署窓口에!

弟嫂는姙娠八個月 두딸의將來黯黮

被害者의實兄徐丙昌氏談

조토록解決!

京電事故係岡本主任談

前例대로處理

京電八木運輸部長談

二千六百年記念 獨巨匠作曲完成

映畵統制도遂實現

難産의施行細則完成

本令은內地法轉用 七月一日實施準備

愛國日에술먹고 若鬧한醉漢

燒酎의品貴도 闇取引關係

三井物産에서配給機構整備

防空訓練第一夜

雨中에秩序整然進行

"싸이렌"一聲에 明暗의두世界

昨夜長安거리의風景

三回線을裝置

一線의電話線에서

資源不足과電話輻輳에朗諾

天道敎第二世敎祖 海月神師還元祈禱

就職詐欺漢被逮

七十老翁이客死

洪義疇氏美擧

東亞大會競技 日本選手結團式

昨日軍人會舘서擧行

學生蹴球리그

今日京運서擧行

學生劍道大會 高農軍이制覇

洪·西蹴球復活

뻘칸斷郊競技 유ー고가連覇

職業野球리그戰績

滿洲排球軍 學聯選拔軍一蹴

東亞大會順序

早慶水上對抗戰 來九日神宮서擧行

新姓名學과 이름짓는法
人一"凶吉代의"運命을左右하는!
好評重版出來
日本姓名學館

科喉咽鼻耳 姜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三七一〇番 入院室完備

山口樂器店 鍾路支店

藥聖病人婦 ユウトン

水酒에注意

クルミオイル 비듬내는香油
金千壽商店

小兒의설사와消化不良에 ベービー散 베ー비ー散

外科 皮膚科 肛門科 醫學博士 朴昌薰

中部版

觀衆이 無慮數萬名

應援聲이 放鶴臺震動

永登浦蹴球團對城南體育A部로始作

本社永登浦支局主催 畿湖蹴球大會第二日

【永登浦】본사영등포지국주최제칠회기호축구대회(第七回畿湖蹴球大會) 제이일인 유월이일에는 오전여덟시부터영등포축구단(永登浦蹴球團) 대성남체육부(城南體育部A)의 대전으로부터 시작되엇는데 이날은 제일일요일이자 첫여름의 조흔일기를차저 운동장을둘러싼관중은 무려일만 여명으로 경기가진행됨을따라 응원하는소리는 방학대(放鶴臺)를 뒤흔들엇다 이날의경기성적은다음과갓다

大會第二日

第一回戰

城南A 4 (1 3 … 0 1) 1 永蹴

興仁 1 (1 0 … 0 0) 0 三星

仁亞 0 (抽籤勝) 0 京鐵

弘中 3 (2 1 … 0 1) 1 永新

新友 2 (1 1 … 0 0) 0 飛虎

廣州 3 (3 0 … 0 0) 0 京老

第二回戰

杉山 7 (5 2 … 0 0) 0 白虎

城南A 4 (1 3 … 0 0) 0 興仁

弘中 (仁亞棄權) 仁亞

廣州 7 (0 1 … 0 0) 0 新友

第三日은雨天

九日正午에續行

【永登浦】중부조선축구계의 패권을 결정하는 기호축구대회제삼일인 유월삼일은 오후두시부터준결승과 결승전을 거행하려하엿스나 비로인하여 다음일요일 즉구일정오부터 속행하기로 결정하엿는데 당일에대지할경기는 다음과갓다

準決勝 杉山製作—城南體育 弘中商工—廣州蹴球

決勝 杉山城南의勝者—弘中廣州의勝者

三陟에도慈雨

【三陟】삼척지방의 주요작물인 보리 감자는 하절에당하여 가장 주요한시기를 당하는데 이작물의 풍흉에의하여 주민의 사활문제가 좌우하게된다 그런데 삼척지방은 오랫동안 비가 업서 한재가 계속하여 매우우려되던바 오월 나리기시작하여 우선해갈은되엇스나 이앙도 본격적으로 진척되지안코 아직도 오륙십미리의 강우가계속되기를 기다린다고한다

金浦郡春蠶收繭量

二萬二千瓩豫想

蠶兒의發育狀況이良好

【金浦】김포군내의 금년춘잠소립매수는 군농회에서 배부된수량이 팔백매인데 금년은양업의발육상황도양호하여 잠아의 경과상황이 매우순조로워서 수견량이 만이천키로그람의 예상고를보히고 잇다는데 특히초천에 잇서서는 각면에서 공동으로최청을하여 이를각양잠가에 배부하엿스며 치잠사육기에 강연급 상(便蠶飼育)을 시험하엿든바 잠체도 매우건강하여 조호성적을 한다

邑營共同浴場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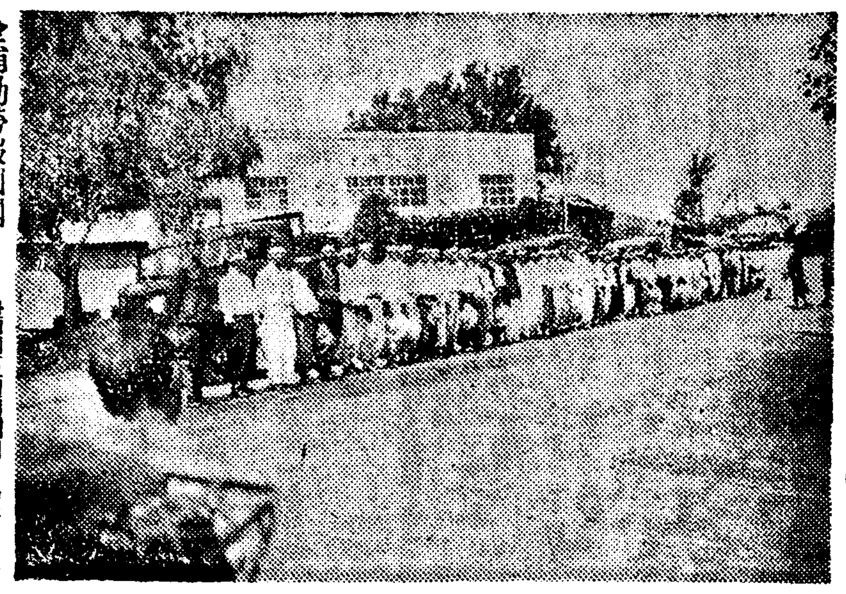
【三陟】삼척읍(三陟邑)에서는 읍민의 보건과위생을위하여 여러가지로 그실시건을 검토해오던바 특히공동욕장(共同浴場)이업서 읍민의불편이만흠을 유감으로 생각한나머지 금년도읍예산에 일천원을 계상하여 공동욕장을 설치키로 결정하엿다고

鐵道局트럭이

行人을轢傷

泥醉한無免許運轉手過失로

【蘇萊】술이취한 무면허운전수가 평지에서 속력을노하 행인을 상하게한일이 소래면 대야리에 발생하엿다 지난이일오후 네시사십분경에 부천군소래면신천리와(富川郡蘇萊面新川里)대야리 경계에서 철도국소유 경제트럭을 운전수 오전사백삼십구호 양일동(良一東假名)이가 … 리에는 아직도보축하다한다



金浦勤勞報國團

出動奉告祭

【金浦】김포군노보국단 제이차 출동부대백명은 예정과가치 지난일일오전열시에 김포신사에 모여 출동봉고제를 거행한후 단원일동은 씩씩한자세로 부평공사장을 향하여출발하엿다 (사진은 김포근로보국단출동광경)

清州商工會議所

設置祝賀會擧行

【忠北支社發】청주삼만부민의다년간숙망이던 청주상공회의소설치문제는 지난오월십오일부로드디어 설립인가되엇는데 동회에서는 동회원과 관민유지를 초대하고 지난삼일 오전아홉시부터 읍회의당에서 설립축하회를성대히거행하엿다

甲山繁榮會蹶起

郵便所怠慢問題

【甲山】갑산우편소배달부가 중요한편지와 소포등수십통을허천(虛川)강변에버려 이것이 일반의공기를 의회시기는동시에 갑산경찰서에서는 그범인을탐사중에잇다한다 갑산번영회에서는 지난이십팔일 오후여덟시 갑산번영회(甲山繁榮會)를 회장박희동(朴羽東)씨사회로열고 이문제는 갑산번영에 영향이적지안흠을동시에 이번뿐만아니라 벌써편지가 번번히여러날후 배달하는것이 보통이되어 조에나가는신문은 본인에게배달하는적이업고 전부를 거 …

忠南道內救濟工事

五月末로全部完了

河川改修一〇個所、道路改修三一一粁等等

【忠南支社發】작년한해이재민을 구호하기위하여 총공비 일백십사만칠천오백사십삼원을던저 사、오월달 동안에실시된 충남도의 제이차 한해대책토목공사는 당국의간단업는독려와 도민의근실한 작업으로말미아마 지난삼십일일로써 전부를맛치엇다 그런데 이중에서 약팔십만원이 순로임으로각 이재민들의 주머니속에 들어갓기때문에 수백년래 처음보는재해의 춘궁기를무사히 돌파시키기 위하여 이번해 보리고개도 어렵지안케돌파하게된동시 도내모든 못을 완전한 하천십여개소의 개수와국도개수삼십키로 지방도의 개수 개량등일천삼백키로 읍면도 수축이백삼십삼키로 합계삼백십일키로가와정되엇스므로 이에따라장래의도세발전에도 큰효과를가저오게되엇다

米穀傳票制

江華島서도實施要望

【江華】강화도당국에도 미곡배급조합을 설치하고 배급의원활을 기하고잇스나 아직그제도가 전표의발행이 업기때문에 불편이만흠으로 일반군민은 하루속히배급전표제를실시하여 양미구입난을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한다

洪原咸陽朴氏創氏

【洪原】함남홍원군(洪原郡)에잇는 함양박씨(咸陽朴氏)는 창씨에관하여 여러가지로의론하여오던바 요전음드디어 신정(新井)으로결정하고 일제히 이를계출하엿스리라고한다

叺織競技大會

定平郡農會主催로

【新上】군농회주최로열린 가마니경기대회는 지난이십팔일 신상동소학교교정에서 열리엇는데 수백여명중 수상자는 다음과갓다 일반부일등은 신상면호동리 이전별、허동식(新上面洞中里 李…)

拳銃과大金携帶한

怪青年檢擧取調

開城南本町强盜事件과關聯?

【開城】지난이십사일새벽 부내남본정(南本町) 심명수(沈明洙)의집을 습격한 복면강도는 아직 진범인을체포치못하여 개성서에서는 물면봉화의 활동을계속하는중 지난삼십일밤 부내남정 신흥식당(新興食堂)에서 현금칠백원절취한범인이 들어잇는 권총을휴대한 괴청년을 발견 체포하게되엇다 금극비밀리에취조중인데 도대체 이권총을 갓고 개성에 떠돌어온 낭선청년은 정체가무엇이며 또는 권총은 어데서 난것인지 …

記念貯蓄獎勵

【榮山浦】전남영산포 읍내영산포금융조합직원은 조합창립 삼십삼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금조기념 저축을장려하여 호성적을엇엇다한다

西上에喜雨

【西上】함양군에도 한천이계속되어 풍작을예상하던 맥작(麥作)도 타기시작하고 묘대에도 판개수의부족으로 작년과가치 극히우려되던니 지난삼십일일오후부터 비가나리어 해갈을 엇게되엇스나 아즉도 비가나리기만 고대한다고한다

永同地方에

惡德債鬼跋扈

【永同】영동지방에는 최근채귀들이 도조라는자의 약점을이용하여 소위어려운가정을 상대로 고리를놋고 재금의일할내지 이할의고리를 구전으로 강취하는 등 … 직업적으로 상습을하고 잇스며 부락경기일 민중은 비난이자자하다한다

點心을供給

極貧學童八十名의

筏橋南小學校의壯擧

【筏橋】전남벌교 남소학교(筏橋南小學校)에서는 현재통학생 중 극빈아동 팔십명에게 점심을 주기로하여 학교당국의 선처에대한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牟麥增收는決定的

二百萬石收穫은無難타고忠南農務課樂觀

【忠南支社發】지난 삼십일부터 나린 비는 고루고루내린 한방이엿스나 평균사십오미리의 강수로 다시 도농무과에서는 금년 맥작은 이백만석의 수확은 무난하리라고 낙관하고 잇다 (사진은 대전교외의보리밧)

清州에甘雨沛然

【忠北支社發】계속되는 한발로 일반농작물의작황이 우려되던바 지난삼십일에이르러 청주지방에는 시원한가랑비가 내리어 일반농가에서는 적이 안심하게되엇다

江華에도甘雨

【江華】강화도에는 지난사월에 소나기몇방울 나린후 매일가치 청천에 비만 바라고잇든 중 지난삼십일오후부터 가랑비가 시작하여 한결해갈을 하엿스나 아직도보족하다한다

富川에도喜雨

【素砂】부천군에서는 오래동안 비가나리지안허 일반농가에서는 근심하든바 지난이삼일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여 적당한 강우를 보게되엇다

農業報國青年隊

釜山에서壯行會

二日夜百二十六名이壯途에

【慶南支社發】조선농업보국청년대 일행은 노력을 권조하고 선진농업의 실제를 체험하고자 일본내지로 향하게되엇는데 이에대하여 경남지부장이하의 축사가 잇슨후 장도에올랏다 그들의 파견장소는 다음과갓다

◆第一隊=慶北(十六名)第一班 慶南(十六名)第二班 以上佐賀縣 忠北(十一名)第七班 黃海(十一名)第八班 江原(十一名)第九班 咸南(十一名)第十班 咸北(六名)第十一班 以上宮崎縣 ◆第二隊=京畿(十一名)第五班 全南(十六名)第三班 全北(十六名)第四班 以上熊本縣

甲山에甘雨沛然

百穀蘇生、憂愁一掃

【甲山】갑산지방은 금년봄부터 비가나리지안허 일반농가에서는 근심하든바 지난이십팔일부터 비가 나려 백곡이 소생하게되엇다

(사진은 대구중앙보국대)

兒童이共謀放火

釜山高等小學校火因判明

【慶南支社發】부산고등소학교의 대화는 제일소학교 재교중인 아동의 방화사건으로 판명되엇는데 그들은 평소부터 학교에 불만을 품고 … 부산서에서 취조한결과 판명되엇다

溫泉神井小學校

教育後援會定總

【牙山】충남아산군온천(溫泉)에 잇는 신정심상소학교(神井小學校)에서는 지난삼십일오후 한시부터 동교강당에서 교육후원회 제구회정기총회를개최하엿다

咸中線鐵道實現?

沿線踏査마친江崎建設課長談

【咸南支社發】함남과평남을연결하는 함중선(咸中線)연선의 주민들은 그실현을고대하고잇는터인데 이번 강기(江崎)건설과장은 연선을 답사하고 …

光州府營業稅

未納者廿九名

【全南支社發】광주부내에잇는 영업세수상한은 예년에비하여 현저히 불량하엿다는데 부당국에서는 매우 우려하고잇다

永同에甘雨

【永同】계속된한발로 일반농가에서는 근심하든바 지난삼십일오후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여 일반농가에서는 깃버하고잇다

金浦地方에甘雨

그러나雨量은未洽

【金浦】김포지방에는 오래동안 한발이 계속되어 매일가치 구름만 바라보고잇든중 지난삼십일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엿스나 우량은 불과 이십미리에 지나지안허 일반농가에서는 아직도 비가 더 오기를 기다린다고한다

校長의人事 六、新任挨拶 七、昭和十四年度決算報告 八、昭和十五年度豫算案審議 九、事業報告 十、會則變更

種免百餘頭購入

飼育部落에配付

金浦郡當局養免積極獎勵

【金浦】김포군농회에서는 …

綿布配給組合

永川에서創立

【永川】대중상회에 …

地方人事

◆金在鎭氏(前蘇萊保護區監視在森林主事補) 富川郡轉勤人事次本社蘇萊分局來訪

◆金國石都氏(校士)蘇萊水利組合新任人事次同上

◆尹亩根氏(醫生)今般蘇萊醫院開業人事次同上

社告

淳昌支局 位置 全北淳昌郡邑內 變更 昭和十五年六月一日 支局長 金興燮 右新任 支局長 李起善 右解任

嶺美支局 位置 平北嶺美邑內 變更 昭和十五年六月二日 支局長 張泰淵 右新任 支局長 尹起潤 右解任

東豆川分局 位置 京元線東豆川驛前 變更 昭和十五年六月一日 分局長 楠本善三 右新任 分局長 安永喆 右解任

社告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支分局長을變更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謹告

岳陽分局長 趙鎭禹 記者 姜三碩 河東支局 白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驅黴砒素劑

國産品の嚆矢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 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ネオ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 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 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療와 豫防에適합。

또 脊髓癆、痲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ー데에因한 疾患 마라리아、鼠咬症、氣熱、熱帶苺瘡等에도 特効잇슴。

또 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 砒素劑應用의 모든範圍에 良効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二號(〇・三〇瓦) 三號(〇・四五瓦) 四號(〇・六〇瓦) 五號(〇・七五瓦) 六號(〇・九〇瓦)

또 靜脈內注射不可能의 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 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キフロン의 選用을願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十九番地 大連市 奉天 大和區平安町三丁目三番地

NTO

長篇小說

青春茂盛 (70)

李泰俊 作
鄭玄雄 畵

다시붙나비 (八)

은심의 웃는얼굴에 치원은더욱 불안스러웟다.

『은심이 기른 아름다운처녀는 나기른 사람 아니고도 얼마든지 웃음과, 맘맘의길이 잇슬거다!』

치원은 눈부신 처녀를 태양에 오히려 일홈을 느끼며 것는다.

얼마 더 것지 안어 다시시가지가 나타난다.

『서긴 어딘가요?』

『저기두 성선(城線)이라는 정거장이 잇스니까요』

『그럼 더 가지말어요』

『네』

두리는 조금 두던진 도랑엿으로와서 나무그늘을 미테안젓다.

『물두!』

『그럼 미국은 어느날 떠나시나요?』

『십륙일 회반서 가쓰다마루야요.』

『십륙일! 나흘박게 안남엇게요?』

『네에』

『먼길을 혼자 가시는군요』

『하와이꺼정 갈 동행이 잇서요.』

『누군대요?』

은심은 귀가 화끈해진다.

『가쓰다마루』가 『하와이』에 도착되기까지 『쪼-지한』이 『하와이』로 와서 기다리기로하것이다.

『조선사람입니까?』

『네…선생님왜 득수와 결혼안허섯나요?』

『득수와?』

『지금어디잇나요?』

『그뒤룬나두 모른니까… 가시면 언제 귀국헙니까?』

『안 나올런지 몰라요』

『영주허시게?』

『글세요…』

하며 은심은 적은 돌맹이하나를 집에 물에 던진다. 물은 철벙 소리를 내이고 거기서 일어난 물결 마저 흘러가버린다. 또 돌을 차저 던지고 또던지고…

『그럼 거기서…인제거기서 결혼허시나요?』

『그런거 물으실거 업스세요』

『………』

『저 조선서 아수 떠나버린다는것만 말슴드릴려구 선생님 따라나온거야요』

『선생님 쎄치해지심 저 들러가겟세요』

『……』

『저 선생님 뭡기가…저두사실 언짠으니까요 전 오늘다른데로 가 잇다가 떠날래야요』

『……』

『선생님 노여허심 안돼요 네?』

『은심!』

『네?』

『단 한마디만 나한테 시원히 말해주시오?』

『저거지말한거 업세요.』

『그런의미가 아니라…』

『뭔데요?』

『날 사랑허지 안소 지금은?』

『거 어쩔수 잇지안으세요? 제가 선생님차저온것두 아니구 또우연히만두 여기서 만나뵈서 두런갓다구 그리지 안허요 다른데두……』

『잘……잘 알엇수』

또 은심은 돌을 줍는다. 돌은 물에 풍덩 풍덩 떠러지며 물결채 흘러간다.

『그럼……내가 지금꺼정 이넥타이를 매고 엇는게보기 실흘거요』

치원은 넥타이를 끌러꾸기꾸기 뭉처 물에 던저버린다. 넥타이는 길다라케 풀어지며 물우에 떳다. 죽은 배암처럼 이내 하얏이 가라안즈며 흘러가버린다.

한참 두리 다 말이 업다.

치원이가 먼저 일어섯다. 그러나 은심은 그냥 안저 잇다.

치원은 손수건을 내여 물에빨앗다. 수건으로 얼굴을 닥고 기분을 고처려 넥타이 업는와이샤쓰 단초를 끄르고 심호흡을 하엿다. 그리고 어태와는 딴 맑은 목소리로

『시장하지요?』

물엇다.

『괜찬어요』

『서기 조곰만 더감 소바야석 건 잇는데가 점심 먹읍시다』

『선생님뒤소바 잡수시나요.』

『그것쯤 먹어도 괜찬구 과실도 잇스니까』

『선생님 혼자 가 잡수주 오세요』

『혼자……』

『그럼 좀 사다수세요 미안합니다만』

치원은 저편어를 두어번 회돌려보더니 길을 걷기 시작한다. 아모 생각도 하지 안코리라 결심하면서.

그러나 몃번이나 돌부리를 찻다.

빠나나, 미깡, 비와, 이런것을 사들고 한 십분 뒤에 돌아왓슬때, 은심은 얼굴을 두손바닥으로 싹 무르페 뭇고 들지안엇다. 그는 아모리치도 안호체하던 그가 억개를 들먹거리며 울고잇슨것이엇다.

치원은 실과봉지를 헐석 노흐며 아까 안젓던 자리에 안는다.

한참 기다려도 은심의 우름 끄치지안는다.

娛樂 趣味

"뉴-쓰"映畵指定上映
이미成案決定、實施切迫

『뉴-쓰』영화는 엄마전에 습딥된 『일본·뉴-쓰』가 오는십삼일부터 드디어 제일호를 발행하기로 되어 『뉴-쓰』영화 통제도 어느고 본격적인 『레일』에 올라서게된 모양인데 여기에 관한 취체법규가 지극히 불철저한 까닭으로 수무관청인 문부성(文部省)에서는 미리 불파(不破)사회교육과장 정보과에 전의하고서 『뉴-쓰』영화란 무엇이냐? 하는 의의로부터 『뉴-쓰』영화의 지정상영, 외국제 『뉴-쓰』영화의 국내상영에 관한 취체방법에대한 전반적인 법규를 그동안 신중히 심의중이엇던바, 요즘에 어르러 드디어 어것의 성안이 작성되엇다한다. 절문이 이것에 의할것같으면

(一)…문화영화(文化映畵)와가치 현행 세시간 흥행안에지정상영할것!

(二)일정기간을 지난것은 『뉴-쓰』영화로서 자격을 어저버린다!

는 상세한것이 규정되어 일종으로 수시판게자와 협의수정한다음 내무(內務) 문부 후생(厚生)등 각성의 개정심령으로서 영화법(映畵法)시행규속 제삼십사조에 삽입시키거로 되엇는바, 당국은 느서도 『일본·뉴-쓰』제일호와 동시해서 발행할의향을 가지고 잇스므로 『뉴-쓰』영화의 지정상영은 어대로민가다면 『스파-드』로 실행의명일을 보게될것이라한다.

『올림피아』特別公開迫頭
『마라손·王』孫基禎君도登場

독일정부의 전체적인 후원아래에 『올림피아』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여류감독 『리-펜슈타-르』양 총지휘의 제십일회 『올림픽』대회 장편기록영화 『올림피아』제일부 『민족(民族)의 제전(祭典)』은 체육협회(體育協會)안에 설치된 『올림피아』일본판감수 위원회의 손으로서 여미 일본판이 완성되엇스므로 드디어 오는섭구일부터 동경 방악좌(邦樂座)에서 특별공개하기로 되엇다는 열반봉절은 열러도오는 구월에 될것으로서 S.Y각 봉절관과 계약을 맺고잇다한다. 특별공개의 관람료는 지정석 오원 일등 삼원으로 영화관람료로서는 최근에 드틀게 보는번산 금액이라한다. (사진은 『올림픽』映畵監督中의 『리-펜슈타-르』孃)

映畵製作과 市場
"우선質的向上을待望한"

▼…영화에잇서서 이야기예술거리만 추궁해가며 갈뜻이나 배우가 머리롭는다는것거지 떠한일은 더나얼구마간 양심적인 영화를제작하여보겟다고 나선사람으로서의 떠인일든지 어쩔것이다.

▼…이러한 말은지금으로서의 영화계에 잇서서의 더욱더 욱심헌 부산일치되는것이라구짓는다 『아리랑』이 나올쩍만해도 조선영화계는 그래도 명일의기대를갖게하는비웃섯다. 그러니에는감독은 고만두고라도 영화제작 촬영기하나 또는 『라엇든』하나 지금것과는 비교되한소리수잇고 미던직한것은 아니엇다, 촬영소라는것도 극히근래에와서생긴용어다.

▼…그런데 그렇듯 미약한 『흥행적인효율』에서도 사실 순사되엇고 뒤어어허하며 작품다운 작품이 나와진다.

▼…그다시에는 우선작품을 만들자는 정열에정은영화인들의 가슴은 뛰엇던것이다.

▼…그러면 요즘의 영화계와 그때의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조선영화의향상이었을 생각해 무엇부터 그다른것을 지적할수 잇겟슬까 첫재최근의 영화인들은 넘우도 서양의판도 (販路)에 대해서 워주을당하고 엇지안흔가——그런생각이 든다.

▼…이러케영화를 제작하기전부터 우선판도를 생각하자니까 자연이거기 따러서 그런엿서서까지 돌아갈 세그런영서저치 통성을 나열하게도되고 도를잡서 거생어니하는동무의 지위와 등량을 찍게도되는것 그러게만 생각된다.

▼…울은 여기에는 그마마한제작책임자나 『푸로듀서』의 고심이란것을 엿보수 잇지안흔것은 아니다. 근소한 자본을 가지고명일의 의용을 제우기위해서의 그들의 노력이란 결코 적은것은아니리라 넉넉히 집작되지만 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러타고 해서 그엇든 『일본·드라마』만 뛰어 어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는 내세울수 업스리라. 시장의 대한 타산적인 의욕에 나나아가서는 부질업는 형식을 그공에이면 『피—엘므』만 수리어가지고 영화그것만을 위해서의 머리를 쓰는 서 가을 갓는다면 그래도 얼마간의 질적인향상을 바랄수 잇지안흘가.

▼…이야기는 다시 처어리로 돌아가다만 소외의말 선 정리적인 타산에서 나온 빗친이아닐게 생각되는바 어다. 『아리랑』의 전통을 오늘의 영화인들이 계승지 못햇다는것은 확실히 우리들에 다가치는것이말 서운한 일이어니면 안될것이다.

演劇映畵

朴松氏東劇行

한양영화사(漢陽映畵社)의 『신개지(新開地)』의 기생자로서최근까지도 영화인협회(映畵人協會)의서기로 잇던박송(朴松)씨는 어번에 전임자김혁(金赫)씨의 후임자로서 동양극장(東洋劇場)으로 들어갓다는바 씨는동극에 잇서서신 전부의일을 보는바 문예부에서도 전렬을 회두르고한다.

海外短信

『리스킨』作品 方今脚色中

『세실·B·데밀』감독의 『파라마운트』영화촬자이며 『미가

스크린 鴛鴦譜

男便은阿娘의기둥
안해는氏의"조흔助手" ⑥

★ 黃澈 李正順

편절정(貞町)골목을 서너번 들락 날락 하다가 됩직한 중앙여관(中央旅館)이란 간판이 잡중에 겨우 차자냇다.

여관은 분명 여관이지만 이여관에서 방을 하나씩 빌려가지고 그야말로 또내기살림을 하는것은 아니다.

『아랑(阿娘)』의 『스타-』황철(黃澈)씨는 어엿하게도 이여관에 젊은 주인인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말하자면 밤에는 화장을하고 무대에 나가고, 낫에는 수판과 장부를들고 여관경리에 머리를 쓰는것이다. 여게야 말로 본격적인 일인이어엿인것이다.

『황철씨 계십니까?』

하고 차즈니

『아, 어서 오십쇼.』

하고 나와 반가이 마자수는 사람은 언제보아도 송글송글한 여관의 젊은주인 황철씨다.

안내를바다 우선 안마루로 올라갓다.

『부인은——?』

하고 물으니

『마침 지금 집에잇슴니다.』

한다.

『오늘은 두분의 신혼생활을 견학하려 왓습니다.』

하고 기자의 온뜻을 말하니 결혼한지 아즉 한달도 못된 그야말로 새신랑인 철씨는 조곰도 수접음 어없이

『뭐 보실께 잇세야지 보시다시피 제이집은 어려케 여관을 치니까 그저 구헌달 난장판이죠.』

하는 품이 여간내기 갓지안다.

마루끄테서 우리들의 수다가 이야기를 잠시 듯고잇던 상노비슷한 아이가 금시안으로 휙나게 들어가더니 얼마안되어서 이러한 간들어진 목소리와함께

『어서 오세요』

긴소란 치마를 사르륵 사르륵 소리도 업시 길며나와서 공손히 머리를 수겨 마자주는분은 황철씨의 부인이신 정순(丁順)씨이다.

▽……△

『그래 손문도업시 결혼식을 하십니까?』

『왜 손문노업시 햇세요. 신문에까지 광고까정 내수시고 저러시어……』

하고눈을 힐긋치며 흘기듯 기자를 바라본것은 정순씨 엿다.

『뭘요 뭐 처결도 안내고 살그더니 햇다고 모두들문개하고 하던데』

공격을 가하니까 이번에는 새신랑 철씨가 능쳤어 부트며

『이건 웨 어려세요. 밤을새가며 청첩들을 쓰느라고 모두 손들이 부르터는데요.』

하며 험을 쏙 잎로 처들어 그런소리는 행여 두번 다시말라는 표정을 해보인다.

『아, 난 정말 못바덧는데요.』

하고 추근추근 구니까 이번에는 또 여쾌 대기하고 잇던 정순씨가

『그럼 아마 분수한눈에혹시 빠진게죠.』

해버린다.

『아마 참 그랫나보오.』

철씨도 거든 뜻을 표하기에치착하다.

기자는 여기서 얼른 다른테로이야기를 돌려가지고

『철씨와 정순씨와는 언제부터 어쉽니까?』

하니

『뭐가요?』

하며 또 서치어올 뚝띠고 얼굴을돌려 처다보는것은 정순씨다.

『연애말입니까.』

『네』

『누가 누구 허구 말입니까?』

『그야 철씨와 정순씨죠』

『글세요. 우린들어 연애를햇나요』

하고 시치이를따면 누가 모를을 압니까.

『천만에요 뭐 우린들어그러케 대단하다고 세상이다압니까. 괜헌 소리시지-』

이러케 나가다가는 좀체로말을 열것갓지 안하서

『그래서 그 언젠가 약혼시대에 어떤 기생아가씨자그소문을 알고 황철씨 아페서 자살소동까지 일으킨일이 잇다던서요』

하고 기자 역시 시치이를 떼고 문명치안흔 소리를 척 어리어보낫다.

『앗다 이건 괘니 왜 이러십니까 저두 흉녀마마다 햇습니다.』

철씨의 대답은 머리 무스를이 나올지 다 짐작을 하고돈 어리저리 돌려대는 솜씨가 조금도 빈틈이 업다.

이러다가는 모처럼의『인터뷰-』도 헛수고로 돌아갈것가타서 기자는 다시전법을 달리해서 이번에는미리

『아마 두분이 동극(東劇)에 계실때부터 죠?』

해버렷다.

『글세요. 그러죠. 말하자면 그때부터죠.』

드디어 정순씨도 철씨도항복을하고 말엇다.

두분의 사랑이 싹시트기시작한것은 그전동양극장 청춘좌(靑春座)에늘 잇슬때부타하니 출신아도 오륙년은 넉넉이 되는듯하다.

이 오륙년이란 오랜사이를 두고 철씨는 정순씨를 또 정순씨는 철씨를 각각 어모저도모 뜯더보고 다투어 보기에 여념이엇섯던 모양이다.

『퍽 오래전 부터의 연애죠』

하고 나수이잇을열다가 곳다시 담으리고 머리를 수그리는 정순씨는 두볼이고꾸개노로홍숙어든다.

처음서도 사귀어 알게된것은 정순씨때부터 그호에『아랑』으도 과서도 역시 동극때와같은 연대생활이나 약혼생활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마친양편의 가정상 사정도 잇고해서 올야 살야 결혼식을 거행하게된것이라한다.

결혼을앞후 정순씨는 무대를 쉬고잇다한다.

『인제 배우생활은 단념하셧습니까?』

하니 정작 당자보다도 철씨가

『글세올시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안코 잇습니다. 그러나 자연 살림을하게되면 무대와는 인연이멀어지겟죠.』

하고 대신 대답하여준다.

『스타-』도 결혼만 하면 평범한 가정의주부로 흔은 착실한 남편으로 돌아가는 가부다.

『결혼하신후에 무대에서의 인기가 어떳습니까?』

『어떠긴요?』

철씨는 이러케 되바다 뭇기를 살안다.

『인기말입니다. 그전과 좀 다르지 안하요?』

『글세 그런것은 별로 모르겟던데요. 손님도 인젠 몃명 개인적인 스타-의 연기보다도 단체적인 무대의 분위기나 극적 전개를 더 중요시하는경향이 잇스니까요.』

하고

『그러치안허?』

하며 안해의 동의를 구한다.

『참 그래요.』

하며 정순씨도 응당 그래야 된다는드시 머리를좌 실히 서너번이나 끄떡여보인다.

정순씨는 어디까지나 남편 철씨의 조흔『애씨스탄트』인듯는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웁게하여준다.

기자는 잠깐동안 멈추고 당배를꺼내물엇다.

오디라 JODK

(米加국경전판)에 출연하고잇는 『거리-쿠-퍼』의 다음작품은 『고롱콕·계트트』『로버-트·리스킨』의 공동제작하는 제일회작품 『로버-트』와 『와-너』회사가 제휴하는 제일회작품이다. 그는 어것을마친다음 『사뮤엘·골드윈』으로 도라와서중서에 주연하기로 되엿다. 어것은 『미시시피』강을 배경으로한 도박자의 생활기록으로 『조-·스워링』이 각색을 하게 되엿는데 나를저미정이라한다.

講演(四日午後一時十分)
親土生活의기쁨
李秉岐

흙에서 생장하여 흙에서 살며 흙을 떠날수업는 사람에게는 도회지에서 자라난사람에게는 자랑할수업는 생활사실이 어니와 우리게 한번 건권으로 밝혀 내여 도리어 모두 대자연의 품에 안기어져 하늘 볼, 여름, 가을, 비와바람, 새, 검정, 버레, 달과꽃들의 자상친밀한 벗과정치한관하는 자연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엇는것을 말것입니다. 나는 예러한 소박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말해보겟습니다.

男-對-男

……로서 『아메리칸』의 해양경비대(海洋警備隊)의 세게를 무대로 연애와 우정을 그린 삭품이다! 오래간만에 『에드워-드·로빈슨』과 『에드몬드·오브라이언』이 『컬럼비아』의 특작영화 (二月부터 …에서 봉절)

講演(五日午後一時十五分)
秩序와生活
高鳳景

우리의 하로생활을 돌어시보면 평단문탈것같지만 이것이 일정한 하로가마다고 하는뜻에서보면 여간복잡하게얼키고 오만조증이 아닙니다. 이러저 고도주때한조직이 어떠케잘도 아자안만 업새이라는 큰조각보에 묘하고엽부게 만들수잇슬까. 거기에는어떤규모와질서 아래서 틀림업시 맞조어나가야만 마스막에 네모가반듯한 양전한소각보가 맨시어지될것입니다.

四日(火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二〇分 氣象通報 家庭에도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오늘의안두실것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드)
▲同零時二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講演『親土生活』 李秉岐
▲同六時 三〇分童話『愛國의孤兒』 延星欽
▲同六時三〇分 獨唱과童謠(咸興)一、獨唱 1、월게꽃 2、보리밧 3、자장가 4、자장가 모스 수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產業講座『竹木製品』 吳宗植
피아노 독주 金聖道 童謠 李秉信 獨唱 李貴順
▲同九時 連續講談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學校講座(五九) 金鳳妙
▲同一〇時二〇分 뉴-스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吹奏樂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六時 講演
▲同四時一五分 京城實業野球春季리-그戰實況(國語)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一時一五分 講演『秩序와生活』 高鳳景
▲午後零時二〇分 뉴-스
▲同零時五分 管絃樂(레코-드)

五日(水曜)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二〇分 氣象通報 料理法『氣象變化에對하여』
▲正午 (東)時報 오늘의안두실것
▲同六時三〇分 幼年童話『언니동생』 金福鎭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支那語講座(一五) 李相殷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民謠(모내는소리)
▲同八時一五分 時局講話 李承換
▲同九時 連續講談
▲同九時三〇分 伽倻琴併唱 大尖夫 吳太石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라디오메모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朝鮮語講座

第二放送

▲午後〇時〇五分(城)獨唱
▲同六時(城)하모니카
▲同七時四〇分(城)講演
▲同八時(各局)便覽
▲同八時二〇分
(東)時局讀本
(東)文化講座
(東)講談
▲同八時四〇分
▲同九時一〇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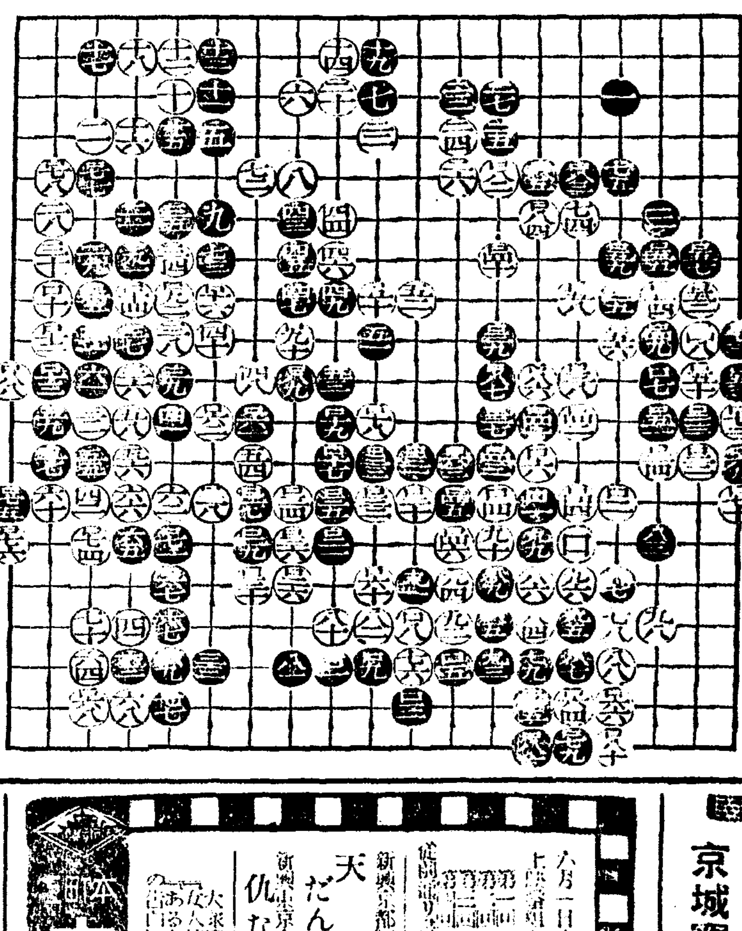
新線名碁譜

落子丁丁山日暮
電光石火的殘兵洗了

觀戰記 權秉都

【12】

白 盧史楚 · 黑 金秉浩 (四日串出)



觀戰에는 벌써이 淋漓하고 白東에서 論功行賞 할일만 남엇다. 甲의 二二에 재치니 白一七이어 어떻다 黑一六九가 그러치 안코 또 이어지는데 白이 번 밧는다. 이는 白이 번 面 白의 敗局을 各外라 대개 決定되고 말앗다.

大陸劇場
6月2日ヨリ上映時間表
望郷 10•30
ニユース 12•05 3•35 7•10
テキサス決死隊 12•15 3•45 7•20
望郷 2•00 5•25 9•00

若草東寶
6月3日よりの上映時間表
男對男 10•30 1•20 4•10 7•10
ニユース 11•45 2•35 5•25 8•30
海軍爆撃隊 11•55 3•45 5•35 8•40

明治座
6月3日ヨリ9日マデ
結婚の價値 11•56 3•26 7•00
ニユース 10•00 1•30 4•53 8•26
カツスル夫妻 10•19 1•49 5•12 8•46

京劇
六月一日ヨリ六日マデ
天祿 だんだら染
仇なさけ

京城寶塚劇場
3日ヨリ5日マデ
黃金座改め
赤ちやん 11•50 3•30 7•00
世界名畫 10•00 1•30 5•00 8•40
ブルグ劇場 10•20 1•40 5•10 8•50

第一劇場
六月二日ヨリ四日間
紅の翼
ロツパの新婚旅行
朝鮮映畫 漁火
旋風(ハリケーン)
東京ブルース

桃花劇場
六月二日ヨリ四日
お江戶奴侍
若い仲間
三人死刑囚

東洋劇場
劇團『豪華船』公演
二十日目
『靑春座』
十五日目
林巨正傳
六月四日부터
大史劇『그前날밤』
李瑞求 作

優美館
大平原猛虎隊
愛情一筋道
大都會の歡呼

新富座
六月二日一六日
授業料
太平洋の翼